

소값 하락에 남편 자살... 온누리안 주부에 온정 줄이어



이웃들의 도움으로 희망을 다시 찾은 필리핀 이주여성 레니카(31)씨가 6일 담양군 대덕면 상운마을 집앞에서 두 딸과 환하게 웃고 있다. /담양=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따뜻한 이웃 있어 '코리안드림' 다시 꾀다

담양 대덕 필리핀 출신 레니카 지반카야 가족

남편의 죽음으로 오갈 데 없었던 국제결혼 이주 여성이 이웃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희망을 키우고 있다.
필리핀 출신 레니카 지반카야(31·담양군 대덕면 상운마을)씨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지난 10월 12일. 지난 2000년 결혼해 딸 둘을 낳고 화목하게 살아왔던 남편 주모(35)씨가 소값이 떨어지고 빚만 늘자 극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남편이 남긴 것은 은행 빚 7천만 원과 소 21마리. 단칸 짜리 셋집마저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채근했

다. 살길이 막막해진 그녀는 간신히 집 형태만 갖춘 낡은 집에서 밤마다 큰딸(8·담양 만덕초교 1년)·작은 딸(5)을 안고 울어야 했다.
하지만, 딱한 사정을 들은 이웃들의 손길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큰딸이 다니고 있는 만덕초등학교 학생들이 돼지 저금통을 털어 83만원을 모아 보내왔고, 교직원·학부모들도 230만원을 보냈다.
담양출신 남장희(61·광주동성철물상사)·남진희(53·경기도 안산시)씨 형제는 "집을 사라"며 1천500만원을 보내왔다.
레니카씨는 그 돈으로 살고 있던

집을 샀다. 우선 거거할 때는 마련한 것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담양읍 문영수법률사무소는 등기권리증 이전을 무료로 해줬고, 광주지역 봉사단체 '광주사랑회'와 대덕면사무소에서 냉장고, 전기 난로, 컴퓨터 등을 선물했다. 담양군도 내년 1천200만원을 들여 낡은 집을 허물고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기로 했다. 인근 자동차용품 생산공장은 레니카씨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했다.
"어린 딸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했는데, 남편이 키워던 소를 팔아 빚도 거의 다 갚았다"며 "이웃 주민들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 딸들을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선 D-12

BBK 공방 2라운드 돌입

反李 "음모 시작됐다" 李 "BBK 끝났다"

鄭 '反 이명박 연대' 제안... 한나라 '대세들이' 시동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BBK 중간수사 결과' 발표의 후폭풍으로 대선 구도가 급격히 '이명박 후보 대 반 이명박 후보군'으로 나뉘면서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은 6일 검찰이 BBK 수사과정에서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역공을 펴기 시작했다.
<관련기사 3·4면>
6일 정동영 대통합 민주신당 후보는 당선동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BBK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거대한 음모가 시작됐으며 수구부패동맹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가겠다"며 "거짓된 세상을 막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해 뭉치자"고 강조, '반 이명박 연대'를 공식 제안했다.
대통합민주신당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명동과 광화문에서 선대위 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수사 규탄 집회를 갖고 검찰 수사 결과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펼쳤다. 대통합신당과 이회창 후보측 변호

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김경준씨를 면담한 뒤 "김씨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을 후회한다. 검사가 12년~16년의 중형을 받는다고 하니 겁이 났고 검찰에 협조하게 됐다'고 말했다"며 김씨 면담록을 공개했다.
또 이회창 후보는 7, 8일 호남을 방문해 BBK 의혹을 비롯, 위장전입·취업, 부동산투기 등 이명박 후보의 위덕성 문제를 집중 지적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BBK 정국 종료'를 선언하는 한편 국회의원·당원협의회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 '공작정치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맞불 공세에 나섰다.

특히, 6일 열리는 대선 후보 TV토론회는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며 대선 중반전의 관세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범여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9인 모임'은 이날 문 후보 측에 단일화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을 경우 중재에 나서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나서 두 후보의 단일화는 금명간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늦어도 오는 13일 이전에 정동영-이인제 후보의 단일화가 매듭 지어져야 한다"고 주장, 범여권 후보 단일화 성사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

상무소각장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환경전문가 등 14명...피해보상 등 본격 지원

광주시 서구 상무소각장 주변 피해와 보상 등에 관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주민지원협의체'가 소각장 시설 가동 6년만에 구성됐다.
상무소각장은 지난 2000년 9월 준공됐으나 주민들이 대기오염과 악취 등을 이유로 설치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가동 중단을 요구하면서 주민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미뤄져 왔었다.
광주시는 "주민대표 9명과 서구의원 3명 등 12명은 이미 선정됐으며 7일 열린 간담회에서 주민대표들이 추천할 환경전문가 2명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절차를 모두 마치고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협의체를 발족시킬 계획이다"고 6일 밝혔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주민대표는 소각장 부지 경계선에서 300m 이내에는 주민으로 서구의회의 추천, 시와 서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됐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소각장으로부터 300m 이외의 지역에 사는 주민

들은 협의체 참여가 배제됐다.
협의체는 발족과 동시에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 소각장 간접 영향지역 범위를 재설정할 예정이다. 현행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축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각장의 간접 영향지역 범위는 기본적으로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체가 구성되면 재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전문연구기관 운영을 통해 간접 영향지역을 기존의 300m 이내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채희종기자 chae@



社 告

광주일보 신춘문예 공모

신춘문예의 역사를 이끌어 온 광주일보사가 한국 문단의 내일을 이끌어갈 신인들의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되어왔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수성과 치열한 문학정신으로 한국문학에 새 지평을 열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단편소설·시·동화... 12월 15일 마감

- ▲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 시: 3~5편 (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동화: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접수마감: 2007년 12월 15일
- 보내실 곳: 우편번호 501-71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전화: 062-2200-635)
- 기타
 -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주소·이메일 주소·인물사진을 함께 보내주십시오.

光州日報社

세계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계보청기

승세기소라·세계보청기

1588-8486 / 062-722-0100